

# 명품처럼 바둑계의 명팀으로 남겠다!

봄의 전령사로 개나리와 벚꽃이 있다면, 바둑계에서 봄을 알리는 전령사 격은 한국바둑리그 개막이 아닐까 싶다. 금년에도 4월 3일 개막식과 4월 12일 정관장 대 SK에너지의 2012 한국바둑리그 개막전을 시작으로 7개월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금년 리그에 참가한 팀은 모두 10개 팀. 기존의 6개 팀(한게임, Kixx, 티브로드, 신안천일염, 포스코LED, 넷마블)에 SK에너지와 정관장(한국인삼공사)이 지난해 말 합류한 데 이어 올초 롯데손해보험과 스마트오로(세계사이버기원)가 전격 가세하면서 리그 사상 처음으로 10개 팀이 함께하게 됐다.

10개 팀 중 바둑광으로 소문이 자자한 롯데손해보험의 대표이사 김창재 사장을 만나 리그 참여 배경과 팀운용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롯데손해보험의 2012 한국바둑리그 입성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한국바둑리그 입성 계기는?

“언젠가 보험회사(제일화재)가 한국바둑리그에 참여한 것을 보고 우리회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회사 홍보도 되고 그로 인해 매출도 신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마침 이번 2012 리그 출범을 앞두고 양재호 사무총장이 ‘기업의 참여가 리그 활성화뿐만 아니라 열악한 바둑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참여를 적극 독려하더군요. 이쪽에서 부탁할 판인데, 그런 제안을 하니 잘 됐다 싶어 못이긴 척 수락했죠. 훌륭한 팀들과 리그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 3연패를 이끌었던 명장 최규병 감독 영입

금년 한국바둑리그에 처음 출전하는 신생팀 롯데손해보험의 감독은 최규병 九단이다. 최 감독은 과거 영남일보에서 팀을 이끌 때 카리스마를 맘껏 발산하며 리그 3연패를 달성해 명장의 명성을 얻어 이번 롯데손해보험의 감독으로 전격 발탁됐다.

-지난달에 감독(최규병 九단)과 선수구성(이창호 九단, 나현 二



(左)롯데손해보험 김창재 사장은 2009년 12월, 한국CEO연구포럼-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연구제휴한 제5회 대한민국 CEO 그랑프리에서 보험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右)3월 27일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상견례를 겸한 창단식이 열렸다.



단, 김정현 三단, 한태희 二단, 최명훈 九단-1~5지명순, 2부 랭스타리그 박준석 初단, 강승민 二단, 김대용 四단, 김윤영 三단)이 완료됐는데, 만족하십니까?

“리그 우승을 여러 차례 이끈, 그래서 명장 반열에 오른 최규병 감독을 전적으로 믿고 (선수선발) 맡겼습니다. ‘바둑국보’ 이창호 사범의 영입을 시작으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나현·김정현 선수 등 신구(新舊)의 조화가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이 비단 한국바둑리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기전에서도 선전해 가까운 시일에 타이틀홀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개막식에서 최규병 감독은 “지금은 꼴등이지만 1등으로 치고 올라가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장차 “명품 팀으로 남겠다.”고 했는데요. 감독, 혹은 팀 선수들에게 주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규병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믿고 맡기자는 주의죠. 바둑은 멘탈스포츠이니 만큼 선수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국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회사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바둑을 두어 주었으면 합니다. 아이고, 이런 멘트도 선수들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겠군요. 부담 갖지 말고 리그에 임했으면 합니다. 하하.”

-바둑계 분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장 이창호 九단과는?

“양재호 사무총장이나 최규병 감독과는 인연이 있지만 이창호 사범은 잘 몰라요. 모시게 돼서 영광이죠. 우리 팀 주장을 맡았으니 예우해 주고 힘을 실어주어 예전의 기량을 되찾도록 도와야죠.”

#### 나의 바둑 스승은 ‘어깨너머’

열 명 중 아홉 명의 얘기가 그렇듯 김창재 사장도 ‘어깨너머’가 바둑의 첫 스승이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바둑 두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바둑의 이치를 깨달았고, 이후 대학시절 상수를 만나며 실전위주로 실력을 쌓았다고 한다.

-아마4, 5단 실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력이 상당하신데, 언제 바둑을 배우셨습니까?

“사내 바둑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해 아마5단증을 받았어요. 바둑은 대학 때 학생회관을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기우회를 발견했고, 거기서 운 좋게 9점 상수를 만나 허구한 날 터지면서 늘었죠.”

-그럼 실전 위주로 배우신 거군요.

“실전 위주였죠. 그런데 자꾸 지다보니 정석, 포석 책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실력이 쑥쑥 늘었던 것 같습니다. 9점 깔고 두었던 바둑이 졸업 무렵엔 2점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9점에서 2점까지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은데,



기재가 남달랐던 것 아닌가요?

“기재는 무슨! 상수한테 라면 사 바치기 싫어 기를 쓰고 텀빈 결과죠. 용돈이 궁하던 시절에 만날 라면 사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 올라 죽을 맛이었죠.”

-라면요?

“내기를 해야 빨리 는다나요. 그러면서 라면 값은 걸고 두었죠.”

-바둑을 오랜 세월 즐기셨으니 에피소드도 많을 텐데요.

“대학 때 상수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라면 바쳤다고 했죠. 직장 다닐 때 저보다 조금 못 두는 후배가 있었는데, 승부욕만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후배에게 예전에 상수에게 당했던(?) 수법을 그대로 써먹었죠. 그냥 두면 실력이 늘지 않으니 내기를 해야 한다고. 선선히 응하더군요. 그래서 당시 회사에서 나눠줬던 식권을 걸고 내기 바둑을 뒀는데..., 결과는 보나마나죠. 한동안 그 친구 식권은 죄다 제 것이었죠. 그 친구 지금은 한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력이 늘어 저하고 호선바둑이 됐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그때 그 식권 강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사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내기를 장려하시

는 것 같군요.

“아이고, 아닙니다. 내기바둑이라니요. 돈이 걸린 내기바둑은 절대 안 됩니다. 진 사람이, 한 수 배웠다는 의미로 밥을 사는 정도여야죠.”

바둑, 집중하는데 최고다!

이 분 참 바둑을 정말 좋아하는 건 확실한가 보다. 처음 보는 기자한테 대뜸 바둑 한수를 청하니. 그래서 물었다. 바둑의 장단점을.

-사장님이 느끼시기에 바둑의 장단점은?

“집중이 아닐까 싶어요. 바둑을 두는 순간 오로지 바둑에만 몰입할 수 있잖아요. 산만한 아이들에게 몰입,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둑을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효과도 높이고 더불어 바둑 인구도 늘 거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중국의 거센 추격에 요즘 한국바둑이 비틀대는 모습인데요. 바둑 팬으로서 바둑계에 조언을 하신다면?

“일시적인 것 아닌가요? 승부는 이기고 지고 하나니까요. 우리 기사들이 다음 번 대회엔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 바둑 팬들도 응원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2012 한국바둑리그 예상 성적은?

“최 감독은 정규리그 4위 안에 들면 우승까지도 바라본다고 했지만, 미운 털 박힐 일 있어요. 올해는 중간 정도 성적을 거두면 만족입니다. 우리 팀 선수들 모두 자기 바둑을 두면서 대기사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정말, 우승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까?

“올해엔 중간 정도 하고, 내년에 욕심을 내 봐야죠. 쉽지 않겠지만.”

### 포석이 너무 어려워

“요즘에 와서 포석이 약한 걸 절감합니다. 포석을 배워야 하는데, 문제예요. 문제.”

요즘도 김창재 사장은 바둑을 즐긴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포석의 어려움이다. 포석만 잘 짜면 중반 이후부터는 그 누구와 두어도 이길 것 같은데, 초반 포석에서 쫓딱 망하다 보니 승률이 썩 좋지 않다고 한탄하곤 한다.

-실전위주로 바둑을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포석이 약하시겠군요?

“어, 그걸 어떻게... 기자 양반, 명동에 돛자리 깔고 나가는 게 더 나를 성심인데...”

-저도 실전위주로 배우다보니 포석 짜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 시간되면 한 수 합시다. 포석 약한 사람끼리.”

-아, 예.

“그냥은 안 되고. 밥 사기 정도는 해야죠?”

-아, 사장님도. 아까 내기 애긴 빼기로 해 놓 고선.

“아참, 그렇구나. 아무튼 다음에 한 번 봅시



지난해 12월 13일 조성환, 황재균 등 롯데지이언츠 선수 5명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직원 등과 함께 서울 오류동에 위치한 '지구촌학교'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 30명을 초청해 지구촌 어린이 후원의 날 행사를 가졌다.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와 '놀이공원 관람 행사' 등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다. 알았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안에서 곰곰 생각하니 덜컥 약속을 한 것이 후회스럽다. 바둑동네 밥 20년 먹은 사람이 '이기면 본전이지만 지면 그야말로 망신 아닌가!'

(인터뷰/구기호 편집장)

### 2012 한국바둑리그 신생팀 롯데손해보험은?

#### 고객 마음 속 1등 보험

롯데손해보험은 고객 최우선 기업 '롯데'가 지난 60여년간 손해보험의 성장을 이끌어 온 대한화재해상보험을 인수해 2008년 4월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전문기업입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폭넓은 금융 지식과 '롯데'의 고객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은 '고객 마음 속 1등 보험회사'를 비전으로 정하고 고객 선호도 1등 보험사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